

보도	2024.6.19.(수) 10:00	배포	2024.6.18.(화)		
담당부서	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	책임자	국 장	정우현	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김지웅	(02-3145-8022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은행장 간담회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4.6.19.(수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新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
-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·건의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

은행장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4. 6. 19.(수) 10:00 ~ 11:00
 - ☑ 장 소 :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4층 회의실
 - 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이복현 원장, 박충현 은행부문 부원장보, 은행감독국장
(은 행) 20개 국내은행 은행장*
- *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카카오은행은 부행장 대참

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이 그간 상생금융 실천과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에 앞장서 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
- ^①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, ^②불완전판매·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정립, ^③은행산업의 미래 준비 등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

① **(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)**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

- 부동산 PF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, 자금순환 등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
- 향후 금리 및 주택시장 등 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, 가계 대출을 명목 GDP 성장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, 스트레스 DSR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

② **(불완전판매·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정립)**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

- 은행 스스로 준법 및 윤리의식이 영업 및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“조직문화*”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

* 주요국 감독당국도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의 '리스크관리문화' 정착을 도모

- 아울러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계기로 영업실적 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
- 금융당국은 향후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, 새로운 감독 수단 마련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

③ **(은행산업의 미래 준비)** 저출산·고령화, AI활용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변화·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장기 생존과도 맞닿아 있는 과제임을 언급하며,

- 은행이 적극적으로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, 변화와 혁신의 성과가 자금중개기능 강화,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줄 것을 주문
- 금융당국도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은행의 부수·겸영업무 범위 확대,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·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예정

3 참석자 발언 요지

-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안정,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,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을 언급
 -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
 - 은행도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,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
- 이복현 원장은 향후에도 은행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감독·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

(별첨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